“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 땐 저속철 우려”

익산시·지역 주민 “신설 논의 중단하라” 강력 촉구

“익산역과 불과 14㎞로 안전제동거리에도 못 미쳐”

익산시가 전북혁신도시역 신설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혁신도시역이 신설될 경우 ‘저속철’이 될 뿐 아니라 지역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정헌율 시장 기자회견을 갖고 “저속철 되는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익산역 이용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익산 역사 확장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역 신설을 주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익산시 안팎에서는 최근 KTX 전북혁신도시역(김제시 공덕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따라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시장은 “KTX가 김제시 공덕면에 멈출 경우 익산역과 불과 14㎞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역간 최소 안전 제동거리(4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차역 증가로 저속철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 신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게 들어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재차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익산지역민들 반응이다.

정 시장은 또 “익산역은 익산시민을 위한 역이 아니라 전북도민을 위한 역”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기대 익산역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는 혁신도시역 신설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30만 익산시민은 호남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도민의 민심을 분열시키는 혁신도시역 신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KTX 익산역 확장하고 익산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권 도시철도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등산객들이 강천산을 찾아 가을 단풍을 만끽하고 있다.

“순창 강천산 전북 대표할만하네” 올해 100만여명 다녀가

순창 강천산이 올 해 관광객 100만을 훌쩍 넘어서며 전북 대표 관광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 29일 기준으로 107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강천산의 경우 병풍폭포 얼음절경 등으로 겨울 관광지로 인기가 있는 만큼 이대로라면 지난해 방문 관광객(110만 56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천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풍광이 뛰어나 4계절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명소로 지난 1981년 전국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병풍폭포~구장군 폭포까지 이어지는 2.5㎞ 구간은 가을철이면 융단길을 걷는 듯한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발효 커피, 토마토 고추장 등 순창에서 맛볼 수 있는 특산품 홍보 활동을 강화,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순창=장양근기자 jyg@

부안군 상서면 동림마을

이달부터 행복택시 운영

교통취약지역 불편 해소

부안군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상서면 동림마을 주민들을 위해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동림마을 노인들의 경우 시내버스가 마을로 진입하지 못해 지금껏 승강장이 설치된 곳까지 1㎞가 넘게 걸어나와 버스를 타는 불편을 겪어왔다.

부안군은 이같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안, 지난 15일간 홍보활동을 거쳐 이달 행복택시를 운영키로 했다.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림마을 주민은 “몸이 아픈 고령의 어르신들은 버스승강장까지 걸어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행복택시가 운행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비 5000만원을 확보, 행복택시 대상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남원 고분군 유물, 문화재 지정 기대

유곡리·두락리 현지조사 마쳐

고대 문화연구에 큰 도움될 것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남원시는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감안, 발굴조사,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조사, 향후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남원시 아영·인월면 일대에 위치한 고분군은 지리산의 한줄기인 연비산(842m)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구릉의 능선을 따라 40기의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은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쳐 6기의 봉토분에서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덧널무덤)와 횡혈식 석실묘(굴식 돌방무덤)가 확인된 바 있다.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대가야·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돼 관련 고대 문화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내장상동~구룡동

이달 말 4차선 도로 개통

정읍시 내장상동과 구룡동 영창아파트를 잇는 도로가 이달 말 개통된다.

지난해 4월부터 72억원을 들여 연장 878m, 폭 20m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해왔다.

정읍시는 도로 개통으로 정읍시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농부의 식품공장’ 쌀조청, 공영홈쇼핑 입점

군산 농민들이 생산·가공

내년부터 판로 확보 주력

군산 쌀로 만든 조청〈사진〉이 홈쇼핑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인다.

지난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쌀로 만든 ‘농부의 식품공장 쌀조청’이 오는 4일 오후 5시부터 50분간 공영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농부의 식품공장 쌀조청’은 군산지역 4개 농가가 모여 만든 공동체 ‘청암뜰 농부들’이 만든 것으로, 농민들이 직접 만든 로컬푸드 가공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쌀조청은 묵은쌀을 사용하지 않아 맛이 신선하고 직접 기른 엿기름을 사용해 전통 쌀조청의 풍미와 적당한 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농부의 식품공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민이 직접 원료를 키우고 가공한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군산시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농민 가공제품으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민 가공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소셜커머스, 인터넷 오픈마켓, 농협 하나로마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음주·흡연 NO! 건강 지키세요” 고창군 보건소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위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고창군 제공〉

순창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이달 말까지 취약지 전수조사

순창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 나선다.

순창군은 오는 30일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조사 기간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위중한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가정,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못하는 주민, 가계 빚이 많은 지역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상담 연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민간단체와 마을이장들과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들을 선정,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기자 jyg@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609평 여객선으로 30분 320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찰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톨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이전함 4억
투자 · 매도 · 교환
• 충장로5가 대지 1321㎡ 3층건물 320평 건물신축적합 60억
• 해남 산이면 5182㎡ 식품공장·전원주택단지 감정25억선 매도13억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사마리 산 70290평 3억9천
• 함평 해보면 2종주거지 9605㎡ 아파트(임대) 적합 60억
• 월산동 라인아파트 부근 2종주거지 758㎡ 다가구등 적합 7억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풍암동 식당 상가주택 대지 211㎡ 건물 193㎡ 시설완비 6억2천
• 함평 2종주거지 3544㎡ 식당과 5층 모텔 등 30억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무안군 청계면 산 16166㎡(4890평) 공시가 5억5천4백 매도 5억6천5백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양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음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선 교환가능 7억8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
▶매매가 상담 후 결정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헌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BN BN테크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송정리 부동산 매물
▶KTX 개통 최대 혜택지
▶투자가치의 3개소
▶11억, 12억, 19억
▶각 코너 위치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대형부지 (만오천평)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